

일 주 문



법화산림대법회 법문
금강선원 선원장 혜계 스님은 3월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리는 법화산림대법회에서 법사로 법문한다.



마곡사 3월 성지순례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월드머시코리아 2014정기총회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2월 27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2014월드머시코리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784-9136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선임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2일 임기 2년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선임됐다.



불교포럼 창립 2주년 기념법회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2월 12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창립2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여성불교연합회 제8대 회장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2월 8일 서울 여불련법당에서 열린 제1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관장에 덕운 스님



조계종 첫 해외복지 시설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덕운 스님이 임명됐다. 스리랑카 조계종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은 신임 관장 덕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관장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5년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12년 고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2012년 2월 통도사 강원, 2014년 2월 해인사 해인율원을 졸업했다.

노덕현 기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 발령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사회대학장 박병식 △의과대학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남경수 △의과대학 부학장 권범선 △의과대학 부학장(연구) 문일수

“불교 가르침, 방송으로도 펼칠 것”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신임 회장(KBS 편집위원)



최근 조계종 언론사불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일태 KBS보도본부 편집위원은 “불교인으로서 불자언론인 회장 된 것이 영광스럽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임 강상구 회장에 이어 맡게 된 정일태 회장(법명 보광)은 경북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KBS 공채 14기 기자로 입사했다. 정 회장은 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에서 기자, 팀장, 보도국장 등으로 일했으며, KBS본사 시청자권익보호국 시청자사업본부장, 포항방송국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업무 중에도 언론사불자연합회 총무를 맡는 등 언론인들의 신생활을 챙겨왔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새로운 과제로 주요 일간지의 연합회 참여를 꼽았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구성을 보면 KBS 100명 정도, MBC가 90명, SBS가 30명, BBS불교방송이 20명 정도로 방송 분야에는 불자조직이 어느정도 구성된 상태”라며 “하지만 일간지는 경향신문만이 40명 규모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요일간지 연합회 참여 과제 제시
중앙·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신행 배가
신임집행부 정기오찬으로 교류 진행

정 회장은 “언론인들의 신행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주요일간지 또한 연합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일간지와 소통으로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KBS 또한 150명 규모로 회원사를 확보하겠다”며 “KBS불자회의 경우 기술 파트와 행정 파트가 주축인데 이 파트 외에도 다양한 파트의 사람들을 영입

해 활발한 신행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활동은 지역불자회와 중앙 간의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소통을 위해서 여의도 포교원에서 하는 정기법회 외에도 신임집행부들이 매월 첫째 목요일 오찬을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계획”이라며 “사회 각 사안에 대해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비구현의 모습을 언론인들이 힘을 합쳐 보여줌으로써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뒤에 총무원의 지원을 받아 일반 불자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종단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언론사불자연합회는 오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원장 현진)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언론사불자연합회는 지난 2004년 10월 KBS·MBC불교연구회, SBS법우회, 경향신문 불자회 회원 등이 모여 창립했다. 지상파 3사와 불교방송, 경향신문 등에서 근무하는 언론인 불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KBS연구동 안에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 신도단체로 등록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일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

조계종 민주본 월례 정기강좌 개최



조계종 민주공동체추진본부(이하 조계종 민주본)가 첫 통일 월례 정기강좌를 개최했다. 민주본은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주본 정책기획위원·사진)를 초청 2월 1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첫 강좌를 진행했다.

“남의 통일대박, 북의 중대제안 그리고...”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이면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앞으로 남북관

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DMZ평화공원 조성은 물론 실크로드횡단철도 등 대북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덧붙였다. 한편, 민주본은 앞으로 매월 남북 간 정세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월례 정기강좌를 연다. 강좌는 매 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및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내용들이 다뤄진다.

민주본은 “월례 정기강좌를 통해 불자들에게 남북 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수 기자

“소외 계층 살피고 사찰을 힐링 공간으로”

동두천불교연합회, 12일 회장 해만 스님 취임 법회



동두천불교연합회장에 취임한 해만 스님(자재암 주지)이 동두천시에서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동두천불교연합회는 2월 12일 동두천 유림관광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신임회장 해만 스님 취임식 및 자비나눔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회장 해만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부대중 모두의 힘이 합해져야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동두천불교연합회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불교연합회가 자비를 실천해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시민들이 사찰에서 편하게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시와 협조해 ‘다문화가정 품어 안기’ 사업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축사에서 “동두천불교연합회가 동두천발전에 큰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도 앞장서 실천해주고 있다”면서 “새롭

게 회장 스님을 모신 만큼 동두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산 법화사 주지 도유 스님, 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의회장, 김성욱 자재암 신도회장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해만 스님은 동두천시 장에게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해만 스님은 철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겸 상임감찰, 사회부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법부 호법국장, 자재암 주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동두천경찰서 경승실장, 의정부교도소 교화위원 등 불교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신종일 기자

탑골공원 어르신 떡국 보시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1월 27일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200여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학명 스님은 “우연히 원각사 앞을 지나가다 어르신들이 빵으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노인 대중공양에 발심이 생겨 시작한 것이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성불사 신도회 봉사단과 함께 떡국 대중공양과 양말선물을 준비한 학명 스님은 “이런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1976년 성불사 장건 후 지금까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00명 성불사 불자들은 군법당 위문품 전달은 물론, 소외 이웃을 위해 겨울맞이 연탄나눔, 쌀과 라면 나눔 등 다양한 보시행을 전개해 왔다. 2001년 성불사에 벽담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돕기운동, 구치소 교화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학인모집

누군가는 가야할 길을 새롭게 열어 가는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분들을 모집합니다.

- 佛典(불교경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漢文이 필수라고 깊이 인식하는 사부대중
- 공부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부대중
- 젊고 삶, 지식과 신행의 일치를 지향하는 사부대중
- 漢文을 제대로 익힌 바탕 위에 불교 이해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부대중
- 수행 공동체에는 양보와 타협, 조화가 필수임을 깊이 공감하는 사부대중

❖ 지원자격

- 본방생(2년) :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비구·비구니 (2014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포함)
- 청강생(2년) : 통학이 가능한 비구 비구니 신심이 돈독한 불자

❖ 모집인원 : 본방생 00명, 청강생 00명

❖ 모집일정 : - 전형 및 면접감마일 : 2014년 3월 6일 오후 2시
- 면접 장소 :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승려증(승적증명서) 사본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소개서 - 사진(3×4) 5매

❖ 문의처 : 휴대폰 010-3718-8090 (학감스님) / ☎ 054)429-1700 (직지사종무소)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합장

